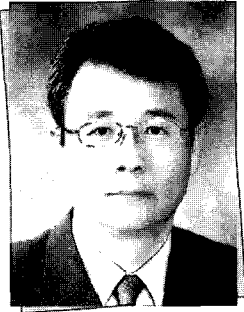


총의치 제작 후 문제점 극복



정재헌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-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
- 조선대학교 부속치과병원 보철과장 및 임플란트 센터장
- 대한치과보철학회 법제이사 및 편집위원
-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부회장
- 대한노년치의학회 편집이사

총의치 제공의 목적은 환자의 생리적, 정신적 요구에 조화를 이루는 보철물을 제작해 내는 것으로서 성공의 여부는 구강건강, 환자의 안락감, 기능 및 심미 회복의 정도를 가지고 판정 해야 한다. 의치 장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근원으로는 환자와 관련하여 구강, 전신 및 정신 요소이며, 의치와 관련해선 적합성(fit), 교합(occlusion), 치아 배열(tooth arrangement), 심미성 등으로 넓게 범주가 나누어진다.

의치장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예방에 관하여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방적 방법으로는 (1) 치료의 한계성과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, (2) 의치의 성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강, 전신 및 정신 요소들을 미리 인식하고 변경, 조절함으로써 환자를 준비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 치과의사의

경험 및 임상적 능력이 요구된다.

의치 장착시의 조절 및 장착 후 조직 관찰을 통한 의치의 조절은 필수적인 서비스이다.

장착 전에 의치의 준비(preparation of the denture) 및 의치의 장착시(insertion appointment)의 의치상과 관련된 조정, 유지 또는 안정의 검사, 교합의 검사, 교합조정, 의치 장착 후 지시사항 등을 살펴보고 또한 의치는 인상면(impression surface), 교합면(occlusal surface), 연마면(polished surface)의 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면들은 각각 의치의 유지, 안정, 지지, 심미성, 발음, 구강조직의 건강 등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 제작된 의치에서 인상면, 교합면, 연마면의 관점에서 제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임상적 조치 등을 순서적으로 검토코자 한다.